

한·일 스트리트 패션의 기호학적 분석 연구

권유미* · 임영자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석사졸업* ·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의 개성과 자유분방한 표현력으로 유행을 창조하는 패션 발신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스트리트 패션의 다양한 스타일이 지니는 의미들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하여 양국의 패션의 흐름을 학문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양국의 패션문화를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세계화 되어 가는 패션시장에서 각국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 기획을 함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패션산업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8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스트리트 패션을 대상으로 한국의 CéCi, école, kiki, 유행통신 등의 패션잡지에서 서울의 압구정동, 이대입구, 명동 등의 사진자료와 일본의 Street Jack, SEDA, KERA에서 일본의 하라주쿠, 신주쿠, 시부야의 사진자료와 본인의 거리촬영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을 살펴보고 기호학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 스스로 만드는 DIY 스타일은 개성을 중요시하는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독창적인 스타일로 많이 표현되었다. 이들은 직접 뱃지 착장, 염색, 찢기, 울 풀기, 페인팅 등을 함으로써 젊은이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개성을 표현하고 자유롭고 풍부한 상상력과 적극적인 자세를 표현하였다.

둘째, 코스프레(Costume Play)의 영향으로 만화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의상이나 프릴과 레이스가 달린 캐릭터 스타일은 젊은 여성들의 귀여움과 발랄함, 향수, 편안함, 즐거움 등을 표현한 것이다. 한국에서의 캐릭터 스타일은 프릴이 달린 블라우스, 만화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 등으로 나타나는 반면 일본에서는 코스프레 의상을 평소에 입고 다니기도 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캐릭터 스타일이 나타났다.

셋째, 동양의 문양과 색채로 표현되는 동양적 스타일은 중국풍, 몽골풍, 인도풍의 의상과 액세서리로 편안함, 자연의 동경, 생명감, 안정감 등을 나타내었다. 한국과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에서 동양적 스타일은 같은 문화권의 요소이므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었다.

넷째,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힙합 음악과 함께 발전된 힙합 스타일은 빅 사이즈의 티셔츠와 땅에 질질 끌릴 듯한 바지, 두건과 여러 가지 소품으로 힙합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회 가치에 대한 저항정신을 나타내었다. 한국 스트리트 패션에서 힙합 스타일은 기본적인 힙합 패션에 여러가지 소품과 착장법의 응용으로 더욱 다양하게 자기 개성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힙합의 기본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다섯째, 기존의 착장법에서 변형·과장되고 비대칭적인 형태로 자유롭게 옷을 입는 착장법의 해체성 스타일은 옷을 여러겹 겹쳐 입거나 이성의 옷을 입기도 하고 용도에 맞지 않는 소품들을 사용하여 개성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젊은이들의 자유분방함과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도전정신을 나타낸 것으로 일본 스트리트 패션에서 특징있게 많이 나타났다.